

2024 봄 제36호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세계로
결대로
올바로



인천송일초 6학년(2012년생 용띠) 학생들

학생성공 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2024 봄

제36호

발행일 2024년 3월
발행인 인천광역시교육감 도성훈
발행처 인천광역시교육청 소통협력담당관
편집인 소통협력담당관 신영진
기획 및 편집 길기호, 여준희
사진 변상호, 이주한, 박정운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
표지사진 인천송일초등학교 교장 허준양
홈페이지 www.ice.go.kr
디자인·인쇄 송도국제디자인(T.032-888-3148)
발간등록번호 인천교육-2024-0089
제호 서체작가 꽃비 고천성
전화 032-320-0082

🔔 특집

- 04 포토교육청
- 05 모두가 행복한 2024년도가 되기를 바라며
- 06 인천교육 교육비전
- 08 2024년 발전하는 인천교육
- 12 대학입시제도 변화에 주목하자

🔊 캠페인

- 14 2023 글로벌 직업교육탐색대
- 18 꼭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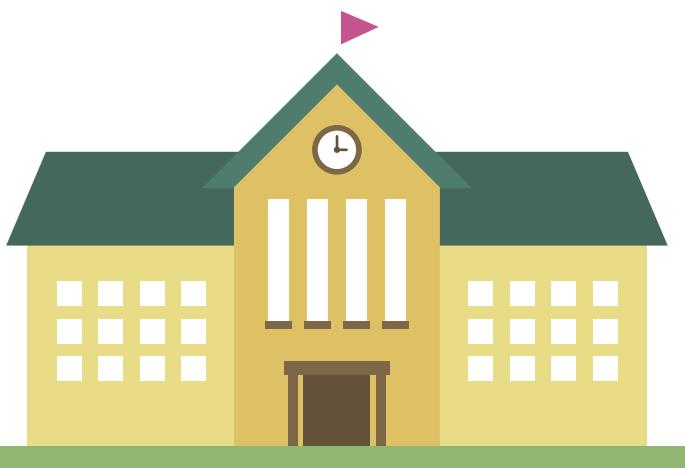
- 20 2024학년도 학생복지지원 사업 소개
- 23 2024년 역점정책
- 30 선생님 곁에 늘 가까이, 교육활동보호담당관
- 32 학생성공버스 운영 사업
- 34 교육지원청 관할구역 변경

❤️ 공감

- 35 제9대 시의회 교육위원회 활동기
- 38 도전, 세계 최고의 선수로의 첫 발걸음
- 40 다음 세대를 기다리며

🏫 학교돋보기

- 42 학교운영위원회 네트워크 활동을 마치며
- 44 있잖아, 너는 밤하늘에 빛나는 별 같아
- 48 미래역량 기업가 정신을 선도하다



특집

인천교육소식지
봄호



포토 교육청

인천-홍콩 청소년 교류회
활동 결과 보고 및 정책제안회



2023년 초등·중학과정 학력인정
문화교육 이수자 합동졸업식



인천광역시교육청-호주 NIET
교육재단 업무협약식



2024.3.1.자 개교예정교 방문



인천광역시교육청
조달서비스 이용 우수기관



인천시교육청-인천병무지청 간
업무협약식



2023년도 조달서비스 이용 우수기관
상패 전달식

가족체류형농촌유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식

4 • 인천광역시교육청

모두가 행복한 2024년도가 되기를 바라며

HAPPY MOMENT

1위는 '건강'이었으며, '경제적 자유', '경기 안정', '평범한 삶', '행복', '목표 달성', '내 집 마련', '여행' 등이 뒤를 이었다고 한다. 그중 '행복'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온다. 그럼,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영국의 음악가이자 비틀스 멤버였던 존 레논은 "어렸을 때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는 선생님의 질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대답했다. 선생님은 내가 문제를 잘못 이해했다고 말했지만, 나는 선생님이 인생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한다. 정말 멋진 대답이 아닐 수 없다. 돈이 많으면 행복은 저절로 따라올 것이라고 흔히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예를 많이 볼 수 있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에서 오며,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가족, 친구, 사랑, 우정, 경험, 시간' 등 이런 것들이 행복을 주는 요소가 아닐까? 소소한 것에 만족과 행복을 느끼는 것이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한다는 생각이다.

새 학년 새 학기가 되면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저마다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다. 학교장 역시 마찬가지다. 늘 그렇듯 2024학년도에도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다. 선생님들에게 "여러분이 행복해야 학생들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자주 이야기하는데, 선생님들이 행복해지려면 교육과정 운영, 학교시설 개선 등에 학교장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2024학년도에는 학생과 선생님 등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에서 오며,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인천송일초 교장 허준양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36호 · 5

| 인천교육 교육비전 |



| 비전 실현을 위한 5대 정책 |

안전에 안심을 더하는 **책임교육**

감염병, 유해환경, 재난재해, 등굣길 위험,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더 나아가 돌봄, 학생 건강, 기초학력에 이르기까지 학생, 교직원, 학부모,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책임지고 만들어가겠습니다.

꿈을 디자인하는 **진로·진학·직업교육**

적성과 진로에 따른 학생 개별 맞춤형 진로교육을 위해 다양한 학교, 다양한 교육, 다양한 지원체제를 만들어 학생의 다양한 성장경로를 지원하는 진로·진학·직업교육을 실천해 가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디지털·생태교육**

인간과 AI가 상생하고 협력하는 역량을 길러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를 선도하며 인천의 해양과 육지 환경에 대한 배움을 통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발전 시대를 살아가는 디지털·생태시민의 삶을 꾸겠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포용교육**

출발선이 같은 교육, 사각지대가 없는 교육, 교육공동체가 동반 성장하는 포용교육을 위해 교육공동체 및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학생 개인 맞춤형 지원을 세분화하고, 원도심, 섬, 신도시 지역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여, 교육 공공성의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세계를 품은 **인천교육**

인천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 147개를 3시간 안에 갈 수 있는 하늘길과 바닷길이 있고, 15개의 국제기구가 있는 글로벌 허브 도시입니다. 글로벌 허브 도시 인천의 특성을 교육 자원화하고,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외국어 역량 향양,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제교류를 통해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을 돋겠습니다.

2024년 발전하는 인천교육

정책기획조정관 장학사 김병수

돌봄



거점형 돌봄센터 개소 인천형 놀봄학교 확대

‘안심’하고 출근하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들은 교육청이 책임지고 돌봅니다.

- 서부 거점형 돌봄센터
서구 ‘루원지웰시티몰’, 24년 3월 개소
- 동부 거점형 돌봄센터
남동구 ‘구월초’, 25년 3월 개소 예정
- 북부 거점형 돌봄센터
부평구 ‘부평동초’, 26년 3월 개소 예정
- 4,5센터 준비 중
- 강화, 송도, 검단 등 검토

‘아침이 행복한 학교’가
아이들과 부모님의 행복을 열어갑니다.

- ‘아침이 행복한 학교
(아침 8시부터 돌봄교실 운영)’
23년 73교→ 24년 96교로 확대

건강



화귀 난치성 질환, 1형 당뇨병 학생 치료비 지원

- ▶ 전국 최초로, ‘화귀 난치성 질환’, ‘1형 당뇨병’ 학생 건강관리와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 화귀 난치성 질환, 소화암, 심혈관, 뇌혈관 질병에 대해 유~고교 졸업시까지 매년 500만원 내 지원
 - 1형 당뇨병 학생 치료비 지원비 1인당 144만원 내 지원
 - 당뇨병 등 요보호 학생 건강관리 ‘찾아가는 컨설팅’ 지원

학생복지



‘초등입학준비금’,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중고등학교 체육복 지원’

▶ 전국 1위의 보편적 교육복지 혜택은 24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 초등학교 신입생 1인당 20만원 지원
- 다자녀(셋째 이후) 가정 학생 1인당 20만원 지원
- 기준 교복에 더해 모든 중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 지원

진로



다양한 학교 설립을 통한 다양한 성장경로 구축

▶ 다양한 학교에 진학하여 학생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 반도체고등학교, 24년 3월 개교
 - 반도체소프트웨어과, 반도체장비과
 - 반도체설계과, 반도체공정과 추가 개편 예정(2025학년도)
- 동아시아국제학교(가칭), 25년 3월 개교 예정
 - 인천한누리학교를 동아시아국제학교로 (가칭) 전환 설립
 - 한국과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국제 언어 교육, 세계시민성 교육 등 진행
- 예술중학교 2개교, 25년 중앙투자심사 승인 목표, 이후 설립 추진
- 체육중학교, 25년 중앙투자심사 승인 목표, 이후 설립 추진

진로



결대로진로센터 (학생성공슈퍼비전센터) 개소

▶ 온라인은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이
오프라인은 ‘결대로진로센터’가 인천
학생의 진로·진학·직업교육을 지원합니다.

- 북부 권역 센터
부평구 ‘갈산초등학교’, 24년 4월 개소
 - 인천한누리학교를 동아시아국제학교로 (가칭) 전환 설립
 - 한국과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국제 언어 교육, 세계시민성 교육 등 진행
- 강화 권역 센터
강화도 ‘강남중학교’, 24년 하반기 개소 예정
- 남부 권역 센터
미추홀구 옛 선인학원 유류부지, 25년 완공 예정
- 서부 권역 센터
서구 ‘루원중학교 옆 학교문화복합화 시설’, 27년 완공 예정
- 동부 권역 센터
동부 지역 내 부지 확보 중

학생 해외 연수



인천 세계로 배움학교 운영

▶ 3,000명의 학생이 해외연수 및
국제교류에 참여하게 됩니다.

- 23년 북극극지아카데미, 기업가정신 해외 연수, 몽골학생자치포럼 등 다양한 국제교류 진행
- 24년에는 국제교류를 체계화하고 확장한 ‘인천세계로 배움학교’ 운영
- 국내 380명, 국외 558명, 온라인 2,062명 해외연수 및 국제교류 예정

사회정서학습



인천사회정서학습 전면 실시

▶ 전국 최초,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사회정서학습*’을 공부합니다.

- 2023년 초중고 교육 프로그램 개발 완료
- 2024년 초·중고 수업 적용 시작(최대 15 차시의 학교 수업을 통해 사회정서 역량↑)

* 자신의 감정과 생각, 행동의 영향을 인지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

생태교육

**인천특화해양교육
'인천바다학교' 확대 운영**

- 인천의 섬과 바다를 직접 경험하는 공부를 통해 생태시민으로 성장합니다.
- 선박 활용 '섬으로 가는 바다학교' 운영(4개 섬 방문)
- 무의분교 활용 '섬으로 가는 바다학교' 운영(6회)
- 해양·섬 체험프로그램 (초중학생 대상 10회)
- 해양·섬 탐구프로그램 (고등학교 동아리 대상 10회)

다문화교육

다문화 프리스쿨 신설 운영

- '다문화학생을 위한 한국어예비과정' (다문화 프리스쿨)이 새롭게 운영됩니다.
- 외국인학생, 중도입국학생 대상 3개월 동안 한국어집중교육 운영
- 거점형 1~2기관 및 학교형 4개교에서 운영

특수교육

'특수학교' 4개교 신설 추진

- 가까운 곳에서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학교를 신설합니다.
- 영종지역 특수학교 : 27년 9월 개교 예정
- 부평지역 특수학교 : 28년 3월 개교 예정
- 미추홀 2학교, 계양지역 특수학교 : 29년 3월 개교 예정

디지털교육

초4~고3 학생 노트북 보급, 인천AI교육센터 구축

- 인천 학생의 디지털 역량교육이 확대됩니다.
- 22,23년에 이어 24년에는 초5, 중1, 고1 학생에게 노트북 보급 (22~24년 보급: 초5,6 / 중1,2,3 / 고1,2)
- 인천디지털교육센터 2곳 운영 : 영종센터, 제물포센터
- 인천AI교육센터 구축 : 인천 내향 8부두 상상플랫폼 내, 24년 12월 개소

AI학습관리

AI학습관리시스템 '인천아이샘' 신설 운영

- AI학습관리시스템 '인천아이샘'을 통해 공부 잘하는 아이로 성장합니다.
- 24년 초등 : 5,6학년 대상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교과 서비스 지원
- 24년 중등 : 중1~고1 수학 교과 서비스 지원

급식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및 GMO 검사 실시

- 더 안전하고 더 맛있는 급식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지킵니다.
-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검사 대상 항목 확대(연 60건 → 150건)
- 학교급식 식재료 GMO검사 실시
- 친환경 쌀과 농산물우수관리(GAP) 쌀 공급

교육활동보호

교육감직속 교육활동 보호담당관 신설

-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겠습니다.
- 24. 1. 1. 자로 교육감직속 '교육활동 보호 담당관' 신설
- 교육활동 침해 예방, 법률-상담-의료 원스톱 지원, 특이(악성)민원 대응

특집

인천교육소식지
봄호

대학입시제도 변화에 추목하자

진로진학직업교육과 장학사 오세종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서의 소위 '킬러문항' 논란, 의대 정원 확대, 2028학년도 대입개편안 등 대학입시와 관련된 이슈들이 많은 주목을 받았다. 2019년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올해 2025학년도 대학입시가 큰 변화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 여러 이슈들로 인한 변화들이 예상된다.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러한 대입 제도의 변화를 이해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에 맞는 효율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대학입시제도 관련 주요 이슈들

①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올해 2월 보건복지부가 2025학년도 대입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했다. 발표자료에 의하면, 비수도권 의과대학의 지역 인재전형을 중심으로 입학정원을 집중 배정하고 5년간 매년 2천명을 증원한다. 최근 대입 수험생들의 의대 선호 현상을 감안해보면, 대학 재학생을 포함한 고교 졸업자들의 수능 재도전으로 인해 수능 응시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② 무전공 선발 확대

올해 1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대학혁신 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모든 대학이 2026학년도 대입부터 모든 전형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한다. 단, 일부 서울 주요대학들이 선제적으로 2025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지원자에게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③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 반영

지난해 4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모든 대학이 2026학년도 대입부터 모든 전형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한다. 단, 일부 서울 주요대학들이 선제적으로 2025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지원자에게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관건

지난해 2024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대학에 제공되는 학교생활기록부 항목이 축소되어 수시모집에서는 고등학교 내신성적 및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창의적체험활동(자율 활동/동아리활동/봉사활동/진로활동),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 등의 기록이 주요 평가요소로 활용되었다. 정시모집에서는 서울 주요 16개 대학들이 수능위주전형으로 40% 이상 신입생을 선발하는 등 수능성적이 주요 평가요소로 활용되었다.

2025학년도 대학입시에서도 이러한 흐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수시모집의 학생부교과전형/학생부종합전형/논술전형, 그리고 정시모집의 수능위주전형 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전형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기실적위주 전형을 준비하는 예술체육계열 학생들도 대학별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전형계획을 꼼꼼히 살펴 준비해야 한다.

2025학년도 대입 학생부 종합전형 공통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학업역량	진로역량	공동체역량
대학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	자신의 진로와 진로에 대한 관심과 준비 정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갖춰야 할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
① 학업성취도 고교 교과 과정에서 이수한 고교의 성취수준이나 학업 발달 정도	① 전공(계열)관련 교과 이수 노력 고교 과정에서 전공(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한 정도	① 팀워크 및 소통 능력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여, 상반되는 의견들과 입장이 다른 사람들을 잘 수 있는 팀워크
② 학업태도 학업을 수행하고 이수하는 나가리는 의지와 노력	② 전공(계열)관련 교과 성취도 고교 과정에서 전공(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업성과 수준	② 나눔과 배려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여, 타인을 위하여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하는 태도와 행동
③ 탐구력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시물과 현장에 대해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	③ 전로 탐색 활동과 경험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수한 활동이나 경험 및 노력 정도	③ 성실성과 규칙준수 책임감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공정하게 기본 윤리와 원칙을 수수께끼로 하는 태도
④ 리더십 공동체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구상한 사람과의 협동작용을 이끌어가는 능력	④ 리더십 공동체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구상한 사람과의 협동작용을 이끌어가는 능력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학이 요구하는 역량이 잘 드러날수록 서류 평가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2024학년도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행 일정 및 주관 교육청		
월	학년별 시행 일정	
	1학년 / 2학년	3학년
3월	28(목) 서울특별시교육청	28(목) 서울특별시교육청
5월		8(수) 경기도교육청
6월	4(화) 부산광역시교육청	4(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7월		11(목) 인천광역시교육청
9월	4(수) 인천광역시교육청	4(수)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10월	15(화) 경기도교육청	15(화) 서울특별시교육청
11월	14(목) 대학수학능력시험	총 6회
회수	학년별 4회	

*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6, 9월)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며, 주후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전국연합학력평가/대수능모의평가를 통해 수시모집에서 일부 대학이 요구하는 최저학력기준 충족 여부를 가늠하고, 정시모집 수능위주전형에 대비할 수 있다.



④ 2028학년도 대입개편안 확정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올해 중학교 3학년 학생들부터 적용되는 2028학년도 대입개편 확정안을 발표했다. 수능시험의 국어와 수학 영역에서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사회탐구(9과목)와 과학탐구(8과목) 영역이 통합사회/통합과학으로 축소되는 것이 두드러진 변화이다. 고교 내신은 5등급제 상대평가(1~5등급)와 절대평가(A~E)가 함께 기재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단, 사회과학 융합선택과목은 절대 평가 방식으로 성취도(A~E)만 표기된다.

⑤ 주요 대학 대입전형 변화

지난해 4월까지 발표된 각 대학별 2025 학년도 대입전형계획을 살펴보면 몇 가지 변화들이 주목할 만하다. 일부 대학들이 자연계열 모집단위 선발 시 제시했던 수능 미적분/기하 과목과 과학탐구영역 필수응시 조건을 폐지했다. 연세대 수시모집 추천형에서는 면접 고사가 폐지되고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며, 고려대 수시모집에는 논술위주전형이 신설(부활)되는 등 대학별 선발 방식에 크고 작은 변화들도 눈에 띈다. 각 대학에서 발표한 2025학년도 신입학전형계획을 통해 꼼꼼히 살펴보고, 수시/정시 전형 방법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캠페인

2023 글로벌 직업교육탐색대 학생 해외체험 연수

인천비즈니스고 교감 김미숙



“
여러분 가슴에
큰 불을 지펴 주고 싶습니다.”

:: 글로벌 직업교육탐색대, 서유럽에서 기업가정신을 배우다.

글로벌 직업교육탐색대는 인천 직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를 대표하는 29명의 학생과 전문교과 교사 4명, 교육청 직업교육담당자 2명으로 구성되어, 선진국의 직업교육과 문화를 탐색해 보며 글로벌 취업·창업 역량을 키우고 기업가정신을 배우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2024년 1월 15일부터 1월 24일까지 8박 10일의 일정으로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에서 우수 직업교육기관과 산업체를 체험하며 선진국의 직업교육분야 교육과정과 스타트업 인큐베이팅을 경험하였습니다.

:: 인천의 직업교육 대표를 넘어 대한민국 직업교육을 대표하다.

참가 학생은 인천 관내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2학년 중에서 학교 자체선발위원회의 선발 과정과 학교장 추천을 통해 학교별 1명씩 총 29명을 선발하였습니다. 학업성취도 및 학습활동 우수 학생, 전문교과 동아리 활동 우수 학생, 각종 경기(경진)대회 입상 학생, 기타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들이 대상이며, 학교별 치열한 선발과정을 거쳐 최종 선발되었습니다. 조리, 패션, 디자인, 회계, 금융, IT, 소방, 자동차, 항공, 바이오, 주얼리 등 29개의 서로 다른 전공을 가진 학생들입니다. 연수 과정에 참여하는 모습과 자세는 학교를 대표하는 멋진 학생들일 뿐만 아니라 인천직업교육을 넘어 대한민국의 직업교육을 대표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 연수 전 활동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인다’

연수 전 사전 활동으로는 지난 12월 8일 인천뷰티예술고등학교 커뮤니티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1차 사전교육을 시작으로 팀별 프로젝트 활동이 온오프라인에서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교육청 자체선발위원회에서 선발된 4명의 글로벌직업교육탐색대 지원단(인솔교사)선생님과 함께 4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3차례 이상의 팀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하였고, 아는 만큼 보인다는 생각으로 방문국가와 기관을 사전에 열심히 조사하여, 활동계획을 세웠습니다.

12월 19일부터 12월 24일에는 현지 사전답사를 통해 방문 예정기관의 일정을 조율하고, 숙소와 식당, 학생 동선 등을 점검하며 안전하고 알찬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2024년 1월 11일 샤펠드미양에서 교육감



님과 부모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던 ‘글로벌 직업교육탐색대 학생 해외체험 연수 발대식’에서는 그간 준비한 팀별 프로젝트 활동 계획을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큰 불을 지펴주고 싶다’는 교육감님의 격려 말씀은 연수 기간 내내 글로벌 직업교육탐색대 학생들과 인솔교사들의 가슴에 화두가 되어 유럽의 선진문화를 경험해 보며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더 큰 꿈을 키우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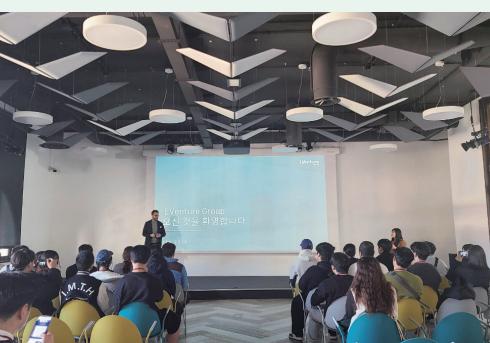

:: 연수 중 활동 ‘내 인생의 전환점’

프랑스의 세계 최고 수준 ‘국제 패션 아카데미 IFA’, ‘국제 요리학교 에꼴 뒤카스’, 스위스 상업분야 도제학교 ‘에꼴 숄츠’를 방문하여 직업학교 교육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IFA와 에꼴 뒤카스에서는 한국 유학생, 에꼴 숄츠에서는 현지교사와의 만남의 시간을 통해 선진국의 직업교육을 배웠습니다. 입학 조건으로 성적보다는 지원동기에 더 비중을 두고, 학생 스스로 시간관리와 공부를 하도록 지원하는 교육시스템이 참가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큰 공감을 주었습니다. 대학에 가지 않아도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찾고 구할 수 있는 스위스의 교육제도를 이해하며, 유·초·중·고 단계에서부터의 직업교육의 중요성을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직업에 대한 편견이 없는 선진 유럽국가의 문화를 접해 본 우리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직업문화와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주역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생기는 벽찬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의 세계 최대 규모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스테이션F와 이탈리아 로마 사피엔자 대학 기업연구센터를 들려보며 글로벌 기업가로서의 꿈도 키웠습니다. 특히, 로마에서 LVenture Group 전문가와의 만남을 통해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시스템을 접해보고, 미래사회에 대한 발빠른 준비, 디지털 역량, 글로벌 취업·창업 역량, 도전정신과 굳은 의지의 중요성도 배웠습니다.



캠페인

사회·문화탐방활동으로는 3박 4일 간(1.15.~1.18.) 프랑스 파리에 머물며, 개선문과 에펠탑, 상제리제 거리, 봉마르트 언덕을 거닐며 파리지앵을 꿈꾸기도 하였습니다. 기차역을 개조해서 만든 오르세미술관에서는 미술책에서 보았던 모네와 고흐의 작품을 직접 눈으로 보며 더 넓고 큰 세상을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2박 3일 간(1.18.~1.20.) 스위스에서는 산장 호텔의 수많은 별들이 탐색대 대원들을 무한한 상상력의 세계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5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는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 아래 알프스 피르스트는 대자연의 웅장함을 자랑하여 견손을 가르쳐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스위스 그뤼예르 치즈공장의 생산공정과 그 곳에서 맛보았던 알싸한 전통 풍류의 맛은 오래동안 낯선 기억으로 남을 듯 합니다.



인천교육소식지

봄호

마지막 방문지 바티칸 박물관에서의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와의 만남은 글로벌 직업교육탐색대원 모두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바티칸 성당 너머 지는 노을도 대원들 저마다의 가슴에 상상 이상의 큰 불을 지펴주며, 더 큰 꿈을 향한 출발을 응원해 주는 듯 했습니다.



:: 연수 후 활동 '여러분의 더 큰 꿈을 응원합니다'

연수 후 활동으로는 지난 2월 28일에 인천뷰티예술고등학교 커뮤니티 스튜디오에서 교육감님과 학부모님을 모시고 결과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첫모임에서 계획했던 팀별 과제수행의 진행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교사들은 이번 연수의 경험을 살려 새학기에 전공교과 교육과정 연계와 수업 나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수과정에서 만난 유학생들과 교사, 기업 전문가와 교수님에게 배운 내용을 뉴스 보도자료, 영상 콘텐츠(TV프로그램), 창업계획 발표 및 시제품 홍보 등을 통해 성과를 나누고 '가슴에 불을 지피다'라는 제목으로 책자를 발간하여 연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2025년 1월에는 2기 글로벌 직업교육탐색대가 진행될 예정이며, 아마도 내년 이맘 때쯤이면 1기 글로벌 직업교육탐색대 학생들은 3학년 졸업을 앞두고 취업에 성공하거나 또 다른 꿈을 향해 대학에서 공부를 이어갈 것입니다.

이번 연수가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지 무척 궁금합니다. 글로벌 직업교육탐색대 저마다의 가슴에는 어떤 불이 얼마만큼 피어나고 있을까요? 여러분 모두의 더 큰 꿈을 응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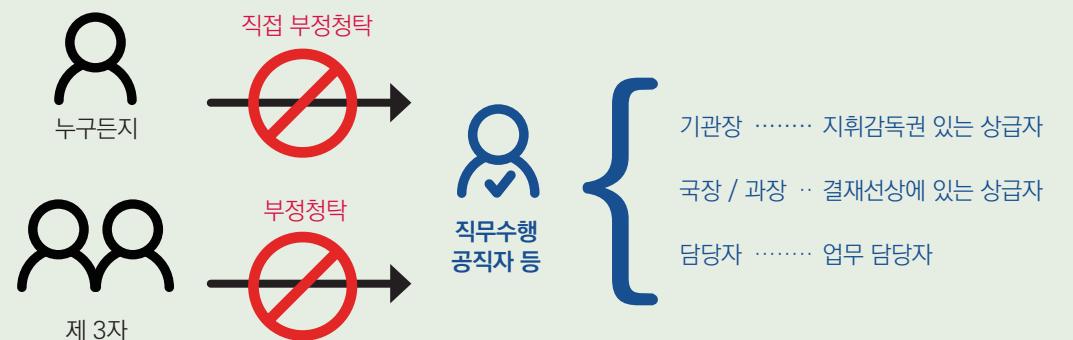
인천광역시교육청과 함께하는 꼭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감사관 주무관 이주연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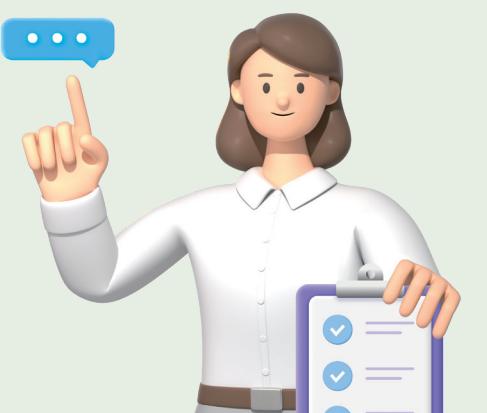
부정청탁의 개념



부정청탁 금지

14가지 대상직무

- ① 인가.허가.특허.승인 등 처리
- ② 모집.선발.채용.승진.전보 등 인사 개입
- ③ 공공기관 주관 수상, 포상, 장학생 등
- ④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에 개입
- ⑤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용역의 사용.수익.점유 등
- ⑥ 병역판정검사.부대배속.보직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 ⑦ 행정지도.단속.감사 결과 조작.목인 등
- ⑧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 감면.면제
- ⑨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 ⑩ 입찰.경매.개발.과세 등 관련 직무상 비밀 누설
- ⑪ 보조금.출연금 등의 배정.지원 등에 개입
- ⑫ 입학.성적.논문심사 등 업무 처리.조작
- ⑬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평정.인정 결과 조작 등
- ⑭ 사건의 수사.재판.형의 집행 등 업무 처리



신학기 학교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A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원(구성원)인 학부모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다? O



방과 후 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아니다? O



초.중등교육법령 또는 학교폭력예방 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학부모위원(구성원)은 공무수행자인으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입니다.

* 공무수행자는 '공무수행에 관하여'만 청탁금지법(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 금지)이 적용



방과 후 교사는 교원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반면, 기간제교사는 교원('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으로 적용대상에 해당

적용대상

선생님에게 제공되는 선물



학생이 담임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이라도 드려서는 안된다? O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이 교장, 교감선생님께 5만원 상당의 선물은 해도 된다? X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안됩니다.



학생들의 성적, 수행평가, 진학 관련 추천 등 학교생활 전반을 관장하는 교장, 교감선생님과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간에는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안됩니다.



2024학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복지 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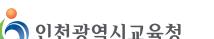
‘첫 학교(초등학교 1학년) 입학준비금 지원’

- ✓ 지원 대상: 2024학년도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3월 6일 학적 기준)
- ✓ 지원 방법: 학부모 계좌(수익자부담경비계좌) 입금
- ✓ 지원 금액: 1인당 20만원
- ✓ 지급 일자: 2024년 3월 21일(예정)
- ✓ 문의: 입학 예정 학교 / 안전복지과(420-8296)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 ✓ 지원 기간: 2024.3.1. ~ 2025.2.28.
- ✓ 집중신청 기간: 2024.3.4.(월) ~ 3.15.(금) 2주간(예정)
- ✓ 지원 대상: 저소득층 학생
※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다름에 유의
-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 ✓ 지원 항목
교육급여, 방과후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고교학비, 학기 중 평일 미급식일 증식비,
졸업앨범비, 숙박형 체험학습비
※ 자세한 내용은 집중신청 기간 이전에 가정통신문 안내 예정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 ✓ 지원 기간: 2024.3.1. ~ 2025.2.28.
- ✓ 지원 대상: 다자녀 가정 학생(셋째 이후 자녀)
- 1. 체험학습비(숙박형)**
- ✓ 지원 방법: 수익자 부담경비 감면
- ✓ 지원 금액
 - 수학여행: 초·중 15만원 범위 내 실비
고 28만원 범위 내 실비
 - 수련활동: 초·중·고 10만원 범위 내 실비
- ✓ 문의: 시교육청 안전복지과(420-8296)
- 2. 신학년(초2~고3) 학습준비비 지원**
- ✓ 지원 방법: 바우처(제로페이) 지원
- ✓ 지원 금액: 1인당 20만원
- ✓ 문의: 시교육청 안전복지과(420-82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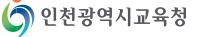
‘초6, 중2, 고2 수학여행비등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 지원 기간: 2024.3.1. ~ 2025.2.28.
- ✓ 지원 대상: 초6, 중2, 고2
- ✓ 지원 금액
 - 초6, 중2: 25만원
 - 고2: 45만원
- ✓ 문의: 시교육청 안전복지과(420-7660)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수능원서비) 지원’

- ✓ 신청 기간: 2024.12.2.(월) ~ 12.13.(금)
- ✓ 지원 대상: 인천 관내 및 인천에 주소지를 둔
타시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 신청 방법: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진학직업교육과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추후 공지)
- ✓ 지원 항목:
 - ①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 납부한 금액
 - ② 대학입학전형(수시모집)을 목적으로 납부한 전형료
 - ③ 국가기술 및 국가공인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 ① ~ ③ 중 선택하여 47,000원 이내에서 1회 지원
- ※ 자세한 내용은 2024년 5월 중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 예정





교육급여

- ▶ **신청 기간:** 2024.3.1. ~ 2025.2.28.
- ▶ **지원 대상:**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 ▶ **신청 방법:**
 - 기존 수급자: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e-voucher.kosaf.go.kr)
 - 신규 수급자: 행정복지센터 교육급여 신청 후 바우처 신청(e-voucher.kosaf.go.kr)
- ▶ **지원 방법:** 바우처 지원
- ▶ **지원 금액:** 초 461,000원/중 654,000원/고 727,000원
- ☏ **문의:** 시교육청 안전복지과(420-8299)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 ▶ **지원 기간:** 2024.3.1. ~ 2025.2.28.
- ▶ **지원 대상:** 법정지원대상자, 중위소득 90%이하 가구, 난민인정자 및 아프간 국적의 특별기여자
- ▶ **지원 방법:** 재학 중인 학교로 지원
- ▶ **지원 금액:**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
- ☏ **문의:** 시교육청 안전복지과(420-8296)

고교학비 지원

- ▶ **지원 기간:** 2024.3.1. ~ 2025.2.28.
- ▶ **지원 대상:** 법정지원대상자, 중위소득 60%이하 가구, 난민인정자 및 아프간 국적의 특별기여자
- ▶ **대상 학교:** 하늘고, 포스코고, 인천외고
- ▶ **지원 방법:** 학비 감면
- ▶ **지원 항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 **문의:** 시교육청 안전복지과(420-8296)

졸업앨범비 지원

- ▶ **지원 기간:** 2024.3.1. ~ 2025.2.28.
- ▶ **지원 대상:** 법정지원대상자, 중위소득 60%이하 가구, 난민인정자 및 아프간 국적의 특별기여자, 특수교육대상자
- ▶ **지원 방법:** 수익자부담경비 감면
- ▶ **지원 항목:** 1인당 7만원 범위 내 실비
- ☏ **문의:** 시교육청 안전복지과(420-8198)

인터넷 통신비 지원

- ▶ **지원 기간:** 2024. 7월 ~ 2025. 6월
- ▶ **지원 대상:** 법정지원대상자, 중위소득 60%이하 가구, 난민인정자
- ▶ **지원 방법:** 교육(지원)청에서 통신사로 납부
- ▶ **지원 항목:** 1가구당 19,250원 지원
- ※ 관내 학교에 재학하는 2인 이상 자녀 가정인 경우 최연소 자녀 지원
- ☏ **문의:** 시교육청 안전복지과(420-8198)

학기 중 평일 미급식일 중식비 지원

- ▶ **지원 기간:** 2024.3.1. ~ 2025.2.28.
- ▶ **지원 대상:** 법정지원대상자, 중위소득 60%이하 가구, 난민인정자 및 아프간 국적의 특별기여자
- ▶ **지원 방법:** 학교급식 또는 급식카드 금액 충전
- ▶ **지원 금액:** 1식당 9,000원
- ☏ **문의:** 시교육청 안전복지과(420-8296)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 ▶ **지원 기간:** 2024.3.1. ~ 2025.2.28.
- ▶ **지원 대상:** 법정지원대상자, 중위소득 60%이하 가구, 난민인정자 및 아프간 국적의 특별기여자, 특수교육대상자
- ▶ **지원 방법:** 수익자부담경비 감면
- ▶ **지원 금액:**
 - 수학여행: 초·중 15만원 범위 내 실비
고 28만원 범위 내 실비
 - 수련활동: 초·중·고 10만원 범위 내 실비
- ☏ **문의:** 시교육청 안전복지과(420-8296)

2024년 역점정책 올바로 결대로 세계로 교육

학생성공시대를 열기 위해



교육하겠습니다.



*글로컬: 글로벌(global)과 로컬(local)의 합성어로 '지역의 특성을 살린 세계화'를 의미

정보

올바로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인성과
시민성을 지닌 인재로 성장합니다.

친절교육



나·타인·세상·생태계를 다정하고
친밀감있게 대하는 교육

인천 사회정서학습(인천 SEL)

- 교육과정 연계 인천 사회정서학습
- 학교폭력없는인천, 생명존중인천
- 동물학대예방교육·동물매개학습

1인 1스포츠·1인 1예술교육

- 1인 1스포츠 활동
- 1인 1악기 연주
- 아침체육활동
- 학교오케스트라

체험중심 인성·효·예절교육

- 인천 4개권역 인성교육원
- 세대공감교육
- 어린이날 기념축제
- 인천 어린이청소년 영화제

화합교육



공동체 구성원들과 화목하게 지내며
공동의 목표를 위해 서로 협력하고 참여하는 교육

교육공동체 봉사활동

- 학생·교원·학부모가 함께하는 온·오프라인 봉사캠프·봉사활동

학교-지역사회 협치

- 가족체류형 농촌유학 농촌체험 프로그램
- 지역과 함께 하는 학교운동회·마을축제

인천 평화교육

- 인천난정평화교육원과 함께 하는 1일형·숙박형 평화교육 프로그램
- 평화예술축제(예술공연 및 전시)

역지사지 교육



다른 사람의 처지에 공감하며
다양성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교육

장벽없는학교·장벽없는교육

- 장애인 편의시설 지속 확충
- 통합교육 활성화

다양성존중교육

- 다문화이해교육
- 미래형 대안교육

교육공동체 인권교육

-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신설
- 학교구성원 인권교육·노동인권교육

올바로 사랑하는 아이들



1인 1스포츠 1인 1예술교육

체육활동과 악기연주 등의 예술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 및 교우관계를 함양하고
신체·마음건강을 회복하는 학습



체험중심 인성·효·예절교육

학교 담장을 넘어 가정-지역사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세대 간 이해·공감 활동을 통해
인성·효·예절의 가치를 깨닫는 학습

결대로

우리 아이들이 저마다 지닌 개성과 잠재가능성을 펼치는 인재로 성장합니다.

읽·걷·쓰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디자인하는 데 기반이 되는 문해력, 기초체력, 쓰기능력과 질문하고 상상하는 힘을 키우는 교육



교육공동체·시민 2,000만 권 읽기

- 교육과정 연계 학교 중심 독서교육
- 지역 연계 독서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 읽·걷·쓰 문화 확산
- 한글날 행사

교육공동체·시민 10만 명 걷기

- 걷기 동아리(클럽) 운영 확대
- 인천문학둘레길 탐방
- 인천교육공동체·시민 걷기 한마당

교육공동체·시민 30만 명 쓰기

- 저자되기 지원 강화
- 초·중·고 글쓰기 역량 강화
- 융복합콘텐츠 창작 역량 강화 지원
- 새얼백일장

디지털·생태교육



현명하고 전략적으로 시대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

유·초 놀이중심 코딩교육

- 초등 활동·체험 중심 코딩수업
- AI·에듀테크 활용 ‘미래형 유치원’
- 실습형 코딩교육 프로그램

인천특화 해양교육

- 인천형 바다학교
- 인천오션에코스쿨
- 황해연안도시 에코교육벨트

디지털·생태시민교육

- 디지털시민교육 교육과정
- 생태전환교육 교육과정
- 디지털 과의존 예방교육
- 시민과학기반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



스스로 자신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자기주도성이 자라는 교육

함께하는 학생 개별학습

- 초·중등 개별 맞춤형 교육과정
- 개인별 학습계획 플래너 표준안 개발
- 결대로 우리학교·결대로미래학교
- 교원 학습코칭 역량 강화

개별 맞춤형 진로·진학·직업교육

- 3,000명 진로·직업멘토단
- 맞춤형 대입지원단·수능원서비 지원
- 메타버스 기반 사이버진로교육원

AI 학습프로그램·플랫폼

- 인천아이샘 국·수·사·과·영(초등) AI 학습서비스
- 인천아이샘 수학(중등) AI 학습서비스

결대로 자라나는 아이들



읽·걷·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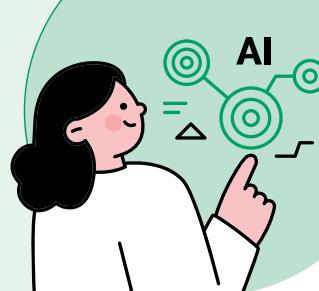
‘읽기’를 통해 지식과 지혜를 쌓고,
‘걷기’를 통해 신체건강과 사유하는 힘을 기르며,
‘쓰기’를 통해 공감하고 성찰하는 힘이 자라게
하는 인천교육 브랜드

인천형 바다학교

168개 섬을 갖고 있는 해양도시 인천의 바다에서,
바다를 이용하여, 바다에 대해 이해하고
지속가능성을 위해 실천하는 역량을 키우는 학교



AI 기반 학생 개별 맞춤형 진로·진학·직업교육



AI 기술을 활용하여 학생 개별학습 데이터를 축적해
최적의 학습경로를 제시하며 언제 어디서든 학생의
자유로운 학습 지원을 통해 자기주도성을 함양하는 교육

세계로

우리 아이들이 인천을 품고 세계로 나아가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합니다.

인천바로알기



나고 자란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참여하는 교육

인천 3대 에듀투어

- 강화에듀투어
- 섬에듀투어
- 에코에듀투어

인천길 탐방 프로그램

- 인천길 96개 코스 프로그램
- 인천길 탐방 교육과정 연계

인천 역사 바로알기

- 인천 지역사 교육
- 인천 교육사 교육

인천형 세계시민교육



지속가능한 지구촌 실현을 위해 인천의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세계시민성을 키우는 교육

세계시민성 함양 교육

- 인천세계시민학교
- 세계를 품은 인천교육 한마당

1인 1외국어교육

- 1인 1외국어교육
- 권역별 외국어교육 거점교실
- AI 기반 외국어(영·중·일) 교육
- 섬마을 맞춤형 외국어 집중 프로그램

국제기구 및 외국대학 연계 교육

- 겐트대 글로벌캠퍼스, 한국조지메이슨대, 중국산동대, 호주테입퀸즐랜드대, 대만국립대 등 7개 해외대학 교육감 추천전형 진학
- 인천형 글로벌 진로과정
- 해외대학 연계 글로벌 리더십 캠프
- 영어 스피킹 멘토링 프로그램
- 글로벌 STEAM 융합교육
- 상상을 함께 나누는 주말 창작소·가족과 함께하는 주말 발명 융합프로그램

인천세계로 배움학교 (Incheon Grand Edu-tour)



세계적·상호문화적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한 상호배움을 이어 나가는 교육

인성·세계시민성 함양 국제교류

- 학생·자치·봉사 국제교류
- 문화·예술·체육 국제교류

글로벌 진로·직업체험 국제교류

- 진로·진학체험 국제교류
- 진로·직업체험 국제교류

국제학술·문화 국제교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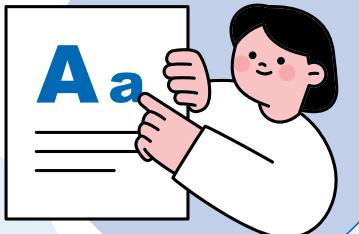
- 디지털·과학·생태 국제교류
- 역사·평화 국제교류

세계로 나아가는 아이들



인천3대(강화·섬·에코) 에듀투어

인천의 역사·생태·평화·문화자원을
교육여행으로 체험하며 지속가능한 미래의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활동



1인 1외국어교육

학생들이 외국어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외국어역량을 함양하는 학습



인천세계로배움학교 (Incheon Grand Edu-Tour)

세계화·개방화·정보화 시대에 국경을 초월한 국제적
상호의존성이 증가함에 따라 글로벌역량 함양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학생해외연수 프로그램



선생님 곁에 늘 가까이, 따뜻하고 세심한 지원으로 더 가까이



“ 2024년 인천 교육활동보호 정책이 이렇게 신설·확대·강화됩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장학사 김대성

◎ 선생님, 안심하세요! “신설해서” 더 가까이 지원합니다.

- 전국 최초 교육감 직속 기구 「교육활동보호 담당관」(2024.1.1.)이 신설되었습니다.
- 교원대상 아동학대 신고사안은 전담팀이 대응하고 교육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교육활동 침해 특이(악성) 민원으로 분류된 사안에 대해 교육청이 직접 대응합니다.
- ‘교원돕움터’가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하여 맞춤 지원을 강화합니다.
- 교원배상책임보험을 교원보호공제로 변경하여 교육활동 보장을 확대합니다.
-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 보호위원회로 이관됩니다.(24.3.28.부터)

◎ 선생님, 지켜드릴게요!, “강화해서” 더 따뜻하게 지원합니다.

- 전담 변호사가 1명에서 2명으로, 법률지원 단이 5명에서 33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 치유·심리지원을 위한 전문상담사가 3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 교육활동보호 현장자문단이 29명에서 50명으로 증원되어 학교를 지원합니다.
- 교육공동체 교원온쉼표 공모사업 운영이 80팀에서 105팀으로 확대됩니다.
-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활동보호 교직원·보호자 연수, 원격연수를 확대합니다.
- 교원 대상 다채운 치유 회복 프로그램 4개 기관을 운영합니다.
- 교육활동 침해 사안 관련 긴급경호, 분쟁 조정, 피해 물품비 보상을 지원합니다.
- 교육활동보호 학교급별 교육 및 홍보자료를 개발·보급합니다.

◎ 선생님, 도와드릴게요! “확대해서” 더 세심하게 지원합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주요 업무 및 연락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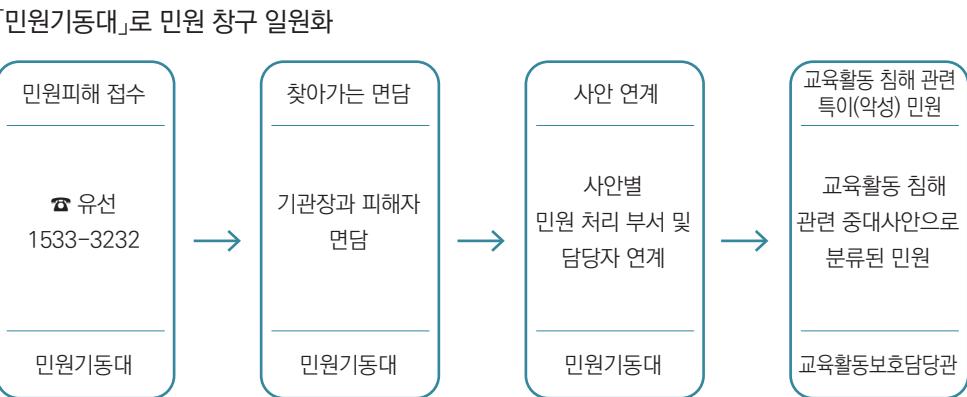
구분	주요 업무	연락처
교육활동보호대응팀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사안 및 교육활동 침해 관련 특이(악성)민원 사안 대응	550-1748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및 특이(악성)민원 관련 교원 상담 · 치유 지원	550-1739
교육활동보호센터	교육활동 침해 관련 사안 지원(유·초·특수학교)	550-1782
	교육활동 침해 관련 사안 지원(중·고·각종학교)	550-1781
법률지원팀	교원 상담 · 치유 지원	550-1783~4
	교육활동 침해 관련 법률 상담 · 자문	550-1785~6
	교원배상책임보험 지원	550-1757

※ 방문주소 :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591번길 71, 현영빌딩 4층(우편번호: 21557)

교육활동 침해 관련 법률 · 상담 · 의료 원스톱 지원 신청 절차



교육활동 침해 관련 특이(악성) 민원 접수 절차



인천교육소식지
번호

정보



학생성공버스 운영 사업

안전복지과 주무관 정지영

:: 사업 개요

목적	이용대상	해당지역	운영기간	예산
교통인프라 부족한 대규모 개발지역 통학(등교) 여건 개선	중·고등학생	송도, 청라·경서, 영종, 검단신도시 서창·남촌, 부평(일신)	2024.3~12 (방학 제외)	44억원

* 학생성공버스 사업 경유지 선정기준

- (개발지역) 개발지역 중 버스 배차간격이 길고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여 교통인프라가 부족한 지역(개발지역 외 원거리 통학까지 확대)
- (학교시설, 교통인프라 부족) 지역내 학교시설, 교통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단시간내에 학생 통학여건 개선이 어려운 지역

⇒ 동일지역내 상대적으로 통학 시간길고 다수 학생이 이용 가능한 지역 우선 선정

:: 2023년 학생성공버스 시범사업 운영 결과

- 운영지역 : 6개 지역
 - 송도, 청라 · 경서, 영종, 검단 신도시, 서창 · 남촌, 부평(일신)
- 운영규모 : 총 26대 운영(22개 노선, 31개교, 867명 이용)
 - 수요조사 인원(1,242명) 중 867명 이용으로 수요조사 대비 70%의 높은 이용률
- 소요예산 : 2,000,000천원
- 만족도 조사 결과 : 학부모 98.1%, 학생 96.5% 만족

:: 2024년 학생성공버스 사업내역

전국 최초 규제샌드박스제도를 통한 교육청 주관 저공해 통학버스 운영(전차량)

- 이용가능학생 : 1,900명(약 51개교)
- 운영규모 : 6개지역 총 45대 운영 예정
- 소요예산 : 4,401,100천원

* 저공해자동차: 1종(전기차, 수소차), 2종(하이브리드), 3종(CNG, LNG)



| 전국시도교육청 최초 규제샌드박스 제도 이용한 학생성공버스 사업 운영 |

* 국토교통부 전국 통학버스 운영 관련 개선 권고(교육청 계약·법률 충돌)

- 여객자동차운수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의 “소속원” 범위와 관련하여 학생의 소속을 학교로 한정 해석함에 따라, 교육청이 계약주체가 되어 통학버스를 운영하기 어렵다는 해석에 따른 통학버스 운영방식 개선 권고

→ 규제샌드박스(국토교통부 스마트실증특례 사업) 승인으로 한시적 규제 유예 적용받아 2025. 12월까지 학생성공버스 안정적 운영 가능

:: 학생성공버스 운영관리

구분	내용	비고
◦ 승하차 단말기 / 어플설치	학생 승하차 확인, 버스운행 정보 제공	통학질서 확립으로 안전한 통학환경 제공
◦ 좌석제 실시	좌석 인식 카드 발급(카드 or 어플)	
◦ 탑승가이드 마련	통학질서 위해 탑승자 이용수칙 마련	

:: 학생성공버스 안전관리

구분	내용	비고
◦ 학생성공버스 통학도우미 배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통학안전 지도등	안전관리 계획 별도 수립·시행하여 안전관리 강화
◦ 도급인, 운전자에 대한 안전의식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이행사항 확인 및 교육	
◦ 이용자 안전의식 강화	통학차량 이용 학생대상 안전교육, 학생 안전수칙 제공	
◦ 통학차량 안전 관리	안전사고 발생시 대응체계 수립	

:: 학생성공버스 사업 기대효과

- (통학복지) 학생성공버스 운영을 통한 통학여건 개선으로 통학만족도 증대와 원거리 배정 및 학교 시설부족에 따른 교육수요자 불편사항 개선 기대

구분	내용	비고
◦ 시범사업	개발지역+일부원거리 통학 (전철역 경유 통한 원거리 통학지원)	학교군 조정+학교시설확충 통학복지 실현
◦ 확대시행	개발지역+원거리 통학 (원거리 학교까지 운행지원)	

- (환경 인식 전환) 전차량 친환경버스 도입(수소버스 3대 포함)으로 학생들의 생태환경 인식 전환 계기 마련

◦ 수소통학버스 도입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23.7) : 인천시교육청, 환경부, 인천시청, 현대자동차, SK E&S, 운수사업자



◦ 친환경버스 운영으로 연간 탄소배출량 18,576kg 절감 예상

* 수소버스는 탄소 배출량 “0”으로 수소버스 확대시 탄소배출량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



교육지원청 관할구역이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2024년 3월 1일 이전,
교육지원청 관할구역은?

인천광역시교육청에는
5개의 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각 교육지원청은 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 ▶ 강화교육지원청 (강화군)
- ▶ 서부교육지원청 (서구/계양구)
- ▶ 북부교육지원청 (부평구)
- ▶ 동부교육지원청 (연수구/남동구)
- ▶ 남부교육지원청 (중구/미추홀구/동구/옹진군)



2024년 3월 1일 이후,
변경되는 교육지원청 관할구역은?

- ▶ 서부교육지원청 (서구)
- ▶ 북부교육지원청 (부평구/계양구)

명칭	소재지	관할구역
서부 교육지원청	서구 (경명대로 713)	서구
북부 교육지원청	부평구 (부평문화로53번길 35)	부평구 계양구

공감

인천교육소식지
봄호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활동기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회 김성민 주무관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신충식 위원장, 조현영 제1부위원장,
정종혁 제2부위원장, 이오상 의원,

임지훈 의원, 임춘원 의원, 한민수 의원)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제292회 임시회를 통하여
2024년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
조례안 심사, 개교예정학교 방문 등을 통해
인천교육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의 인천광역시 의회를
구현하고자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공감

1. 17.(수) 14:00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세미나실에서는 인천시 직업계고 활성화를 위한 시민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직업계고등학교(특성화고)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효과적인 발전 방안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신충식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얻은 의견과 제안을 바탕으로 직업계고등학교의 발전을 위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였으며, 좌장을 맡은 임춘원 의원은 “그동안 직업계고의 발전을 위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부족했음에 공감한다”면서 “오늘 토론회가 인천시 직업계고의 현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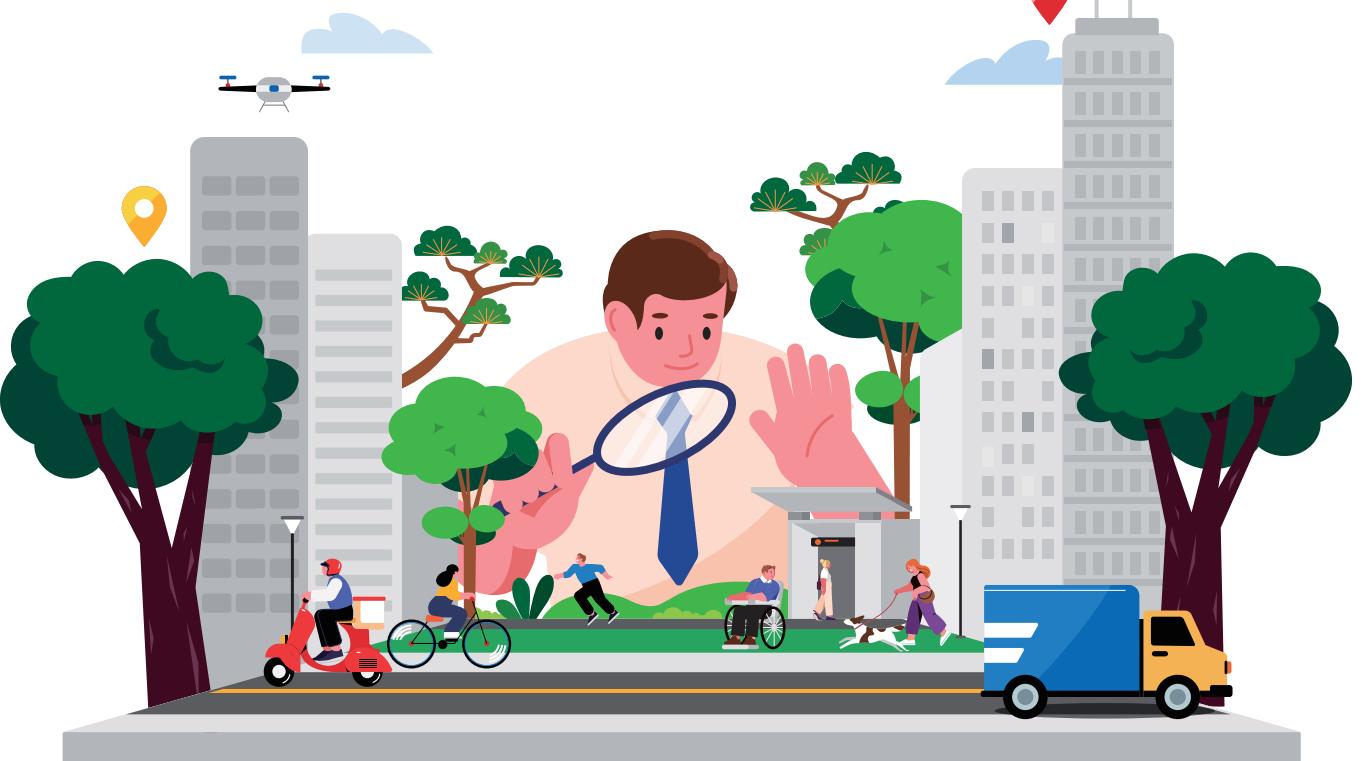


〈직업계고 활성화를 위한 시민토론회〉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

1. 24.(수)부터 1. 29.(월)까지 교육위원회는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기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1. 24.(수)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1. 25.(목)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1. 26.(금) 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1. 29.(월) 인천광역시교육청 본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는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및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으며, 올해에도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2. 1.(목) 교육위원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부동산 교육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3건과,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교육감 발의 2건 등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모든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교육위원회는 심사한 조례안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당부하였습니다.

2. 26.(월) 교육위원회는 제293회 임시회 기간중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조례안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여건을 조성하고자 발의되었으며 일부 자구 및 내용의 수정을 통하여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심사한 조례안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당부하였습니다.

2. 27.(화) 교육위원회는 2024. 3. 1. 개교예정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오전에는 서구 원당

동에 위치한 인천검단꿈유치원을 방문하였고, 오후에는 중구 운서동에 위치한 인천운서중학교를 방문하여 개교 준비상황과 시설 현황에 대하여 사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인천검단꿈유치원과 인천운서중학교는 검단 및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지역 유입 학생 배치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22년 9월 착공해 이달 8일 준공 완료됐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에 참여한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개발 지역에 위치한 학교의 특수성을 감안해 교외 통학로를 집중 점검하며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애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학년별 교실, 급식실, 강당 등을 돌아보며 개교 준비 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교육청 및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충식 위원장은 “무엇보다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돼 학생들이 마음 놓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개교 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2024. 3. 1.자 개교 추진현황 보고〉

한편, 3. 5.(화)부터 3. 7.(목)까지 인천광역시청에 대한 시정질의 및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한 교육·학예에 관한 질의가 이루어졌으며, 제293회 임시회는 3. 8.(금)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폐회하였습니다.

도전, 세계 최고의 선수로의 첫 발걸음

소통협력담당관 주무관 여준희

지난 1월 우연히 하늘초 김정윤 학생(인천하늘초 2학년) 기사를 읽게 되었다. 이른둥이로 태어난 아이가 현재는 인천을 대표하는 피겨 선수가 되었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본인도 딸이 둘이 있고, 첫째가 어린 나이에 전신마취를 두 번이나 해야 하는 큰 수술을 해서 이 기사에 관심이 가기 충분했다.

전국동계체육대회가 끝나면 꼭 김정윤 학생의 이야기를 소식지에 담으리라 결심하고 어렵사리 연락을 했다. 다행히 부모님께서 인터뷰를 흔쾌히 허락해 주셨고 전국동계체육대회 이후 만나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김정윤 학생의 첫인상은 보통의 초등학교 2학년 학생과 같았다. 이상할 것도 없이 당연한 일이었다. 설마 이 아이에게 김연아 선수의 포스를 기대한 걸까?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자기소개를 마친 뒤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다음은 김정윤 학생(이하 '정윤')과 어머니와의 일문일답이다.

▶ 먼저, 전국동계체육대회를 부상 없이 무사히 마친 것을 축하합니다.

▶ 체육대회는 잘 마무리한 것 같나요?

▶ (정윤) 아직 어색한지 씨익 웃는다

▶ (어머니) 피겨의 더블 기술에서 회전수 부족으로 감점을 받아서 아쉬웠지만, 다음 대회에는 힘을 길러서 회전수를 채우도록 해야죠.

▶ 힘은 어떻게 키우나요?

▶ (어머니) 식사 잘챙기면서 근력 강화 운동을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2학년 상반기부터 계획 중이에요.

▶ 피겨는 어떻게 처음 시작하게 되었나요?

▶ (어머니) 처음에는 취미로 목동아이스 링크장에서 시작했어요. 시켜보니 정윤이가 좋아해서 더

집중해서 시켜보고 싶은 마음에 현재 코치님(박빛나 코치)께 오게 되었습니다. 팀에 스케이트를 잘 타는 언니, 오빠들이 대부분 4학년 이상의 선수들이어서 코치님이 더 연습하고 오라고 하셨지만, 테스트 후 팀의 막내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 정윤이와 어머니의 노력으로 시작하게 되었네요. 멋지십니다. 매일 운동하시는 건가요?

▶ (어머니)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훈련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 대단하네요. 정윤 학생은 매일 훈련하는데, 피겨 말고 가장 좋아하는 것은 뭐예요?

▶ (정윤) 친한 친구와 노는 것을 좋아해요.

▶ (어머니) 동계체육대회 마치고, 친한 친구와 여행 다녀왔어요.

▶ 피겨 연습할 때 힘들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 (정윤) 기술이 안 될 때 속상하지만 성공하면 기분이 좋아서 힘든 걸 잊어요.

▶ (어머니) 연습보다 평소 건강 관리에 집중하고 있어요. 일전에 감기로 인해서 대회를 출전하지 못한 경험이 있어서, 이번 동계체육대회 때 건강하고 컨디션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 아직 이르겠지만, 정윤 학생은 이제 피겨로 진로를 정하신 건가요?

▶ (어머니) 정윤이가 좋아하니, 앞으로도 계속 시켜주고 싶습니다.

▶ 정윤이의 링크장 훈련 모습은 어떤가요?

▶ (어머니) 하루 종일 링크장 생활이에요. 훈련 중 일주일 두 번은 4~5시간 휴게시간이 있기도 하지만, 그 시간에는 개인 운동도 하고 학교 공부도 하곤 합니다. 그러고는 밤 12시까지 훈련이 이어집니다.

▶ 정윤 학생은 2024년 이루고 싶은 꿈이나 목표가 있나요?

▶ (정윤) 2024년 꿈나무 대회에서 메달을 받고 싶습니다.

▶ 그럼 앞으로는 꿈은?

▶ (정윤, 어머니) 최고의 피겨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 정윤이가 꼭 올해 1등도 하고 세계 최고의 피겨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 어머니께서 정윤이에게 하고 싶은 말은?

▶ (어머니) 간혹 정윤이가 기술이 잘 안돼서 속상해서 눈물을 흘리곤하는데, 다치지 말고 그냥 즐겁게 타길 바라요.

▶ 정윤이가 부모님께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에요?

▶ (정윤) 엄마, 아빠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고 행복하게 지금처럼 지냈으면 좋겠어요.

▶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꼭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 최고의 피겨 선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김정윤 학생을 만나기 전에는 이른둥이로 태어나 어린 나이에 운동을 시작해서 전국동계체육대회까지 나가는 감동의 스토리를 써볼까 생각했었다. 하지만 만나고 나서 그 생각이 어리석었음을 깨달았다. 이른둥이로 태어났을 뿐, 김정윤 학생은 어느 누구보다 건강하고 밝은 학생이었다. 그녀는 이미 어엿한 인천을 대표하는 피겨 선수이다. 그리고, 머지않아 대한민국을 대표할 피겨 선수가 될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피겨가 아니면 어떠한가 이제 8살인데!. 정윤이를 걱정하느니 당장 내 앞에 쌓인 일을 걱정하는 게 현명하다는 생각을 했다. 정윤이의 전국동계체육대회는 끝났다. 하지만 정윤이는 내일도 링크장



다음 세대를 기다리며



제10기 세계시민교육 중앙선도교사
불로중학교 남성현

작년 나는 신학기 첫 번째 단원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과 적정기술’을 가르쳤다. 학년말에 가볍게 다루었던 주제를 3월 첫 시간부터 학생들과 함께 나누며 주제에 담긴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기존과는 다르게 교과 운영 계획을 파격적으로 바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수업자료와 교수법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새롭게 준비하는 건 번거롭고 때로 힘들지만 기꺼이 도전하고 있다. 바로 ‘다음 세대’ 때문이다.

전 세계은행 총재이자 닥터스대학의 총장이었던 김용의 부모는 어린 시절부터 김용에게 “우리는 이 사회와 세계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가르쳤다 하는데, 우리도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급속한 세계화가 진행됐고, 세상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을 만큼 복잡다양한 네트워크가 진행되었다. 당장 코로나19 펜데믹만 되돌아보더라도 우리는 범지구적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고, 나의 문제 또한 범지구적 문제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단 걸 쉽게 알 수 있다. 결국 우리는 나 자신은 물론 긴밀하게 연결된 타인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깊이 고민해야만 한다.

2015년 송도에서 세계교육포럼이 열렸고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은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평등한 양질의 교육 보장을 역설하며, 세계시민교육과 글로벌 역량을 강조했다. 요즘 많은 학생들이 글로벌 리더라는 꿈을 갖는데, 아마도 당시 유행했던 사회적 분위기가 한몫 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나 또한 이때부터 세계시민교육에 관심을 갖고, 막연하게나마 훗날 무엇을, 또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오래전부터 있었겠지만, 이때가 세계시민교육이 본격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계기이기도 하다. 세계시민교육이란 한 개인이 지역과 국가를 넘어 세계시민으로서 능동적인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배우는 모든 것을 말하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인권 교육, 문화다양성 교육, 평화통일 교육, 생태전환교육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구촌 곳곳을 살펴보면 어렵지 않게 많은 문제를 찾을 수 있다. 당장 우리가 겪은 범지구적 전염병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지지구처럼 전쟁의 위험도 여전히 남아 있다. 국적, 인종, 종교, 성별, 문화 등 여러 부분에서 갈등과 불평등이 나타나고, 세상엔 아직도 생존권과 같은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실정이다. 지구온난화와 대기오염, 미세먼지 같은 기후 위기로 인해 유발되는 식량난과 에너지 고갈은 매년 더 심각해진다. 자연환경은 무분별한 자원 사용으로 견접을 수 없이 오염됐고, 전 세계 인의 자정적 노력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생태계 파괴는 불 보듯 뻔하다.

이처럼 우리는 환경 보전과 파괴의 갈림길, 그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상황 속에서 세계의 안전과 평등, 번영과 평화를 위해, 협력적이고 주체적인 세계시민을 양성하는 세계시민교육이 등장하게 됐고, 그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관심 역시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세계시민교육 자체가 국가 경계를 뛰어넘는 모두를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개인-지역-국가 간 파트너십이 늘어나는 건 어쩌면 자극히 당연하며,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곧 국제적 문제이기 때문에 세계 속에서 세계시민교육은 자연스럽게 교류와 협력, 집단지성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중 대한민국은 국가교육정책으로서 세계시민교육의 이행 현황 모니터링 연구를 실시하고, 관련 조직이나 담당 인력을 늘리는 추세이다.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전담 기구를 설치하여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세계시민교육을 연구하고 활용하며, 세계시민교육 중앙 및 시·도 선도

교사 양성 사업, 세계시민교육 연구회, 컨설팅 지원단, 전문적 학습 공동체 등을 통해 일선 교사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여기에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까지 더해져 우리나라 세계시민을 양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아직까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세계시민교육이 그리 익숙하지 않다는 것이다.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것만큼 쉽고,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관심이 부족한 탓에 거시적인 접근에 따라 거창하게 다뤄지는 것이 현실이다. 일례로 수업 시간 학생들에게 아이들 그룹 BTS가 UN에서 연설했던 내용이 곧 세계시민교육이라 하니, 연설한 건 알았지만 그런 건지는 전혀 몰랐다며 금시초문인 표정을 짓는다. 오빠들이 연설한 거니까 앞으로는 더욱 관심을 갖겠다는 아이들의 표정이 겸연쩍고 귀엽다. 또 한번은 동생이 방에 왔다가 책상 위에 널부러진 세계시민교육 관련 서적을 보고서 “혹시 다른 나라에 가서 선생님 하려고 하느냐?”고 물은 적도 있다. 그런 게 아니라며 실컷 세계시민교육을 설명하고 보니, ‘이게 모

르는 사람에겐 정말 생소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많은 사람이 알고, 관심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이다.

흔히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한다. 교육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니, 100년 후까지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올바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우리는 100년이란 단어가 너무도 막연하여 쉽사리 그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지만, 100년은 곧 다음 세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제는 나라의 운명을 넘어서 다음 세대와 지구의 운명까지도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으니, 새삼 막중한 책임감을 다짐하게 된다. 끝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무분별한 개발이나 환경 파괴, 차별과 혐오, 갈등이 계속된다면, 다음 세대와 기성세대는 모두 불안한 미래를 살아갈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세계시민으로서 소명의식을 갖고, 세계시민교육을 가르치고 배우며 실천한다면, 분명 다음 세대도 우리가 물려받았던 것처럼 평화롭고 깨끗한 세상에서 살아갈 것이라고 확신한다.



학교운영위원회 네트워크 14지구 활동을 마치며

신명여고 운영위원장 (14지구 대표) 정수미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격언처럼 오늘날,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을 학교폭력, 디지털 성폭력, 마약 및 다양한 약물의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개인의 관심과 노력을 넘어 2023년 학교운영위원회 네트워크 14지구 학부모들의 역량과 재능기부를 통해 교육 현안과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교육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리 학교운영위원회 네트워크 14지구는 동인천고, 송덕여고, 신명여고, 인제고, 인천남고, 인천만수고, 인천예술고 7개 학교가 모여 사전 모임을 통해 역할 분담과 구체적인 사안들을 나누는 가운데 구체적인 기획을 펼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각 고등학교의 등교 시간에 학교 정문에서 학교폭력, 디지털성폭력, 생명존중, 마약 및 약물에 대한 예방교육 캠페인을 진행하며 추가적으로 각 학교별로 요청하시는 교육주제에 대한 맞춤형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학생들의 등교시간에 맞춰 학교 담당 교사와 각 학생회 학생들, 학부모회의 임원단과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의 참여를 독려하며 사전 모임을 마쳤습니다. 현수막, 어깨띠, 각종 리플렛과 홍보 물품을 배포하며 캠페인 구호를 학부모, 학생들의 선창, 후창으로 선포하기로 했는데, 예산이 넉넉지 않아 홍보물품과 리플렛, 불법촬영 탐지 카드, 물티슈와 볼펜 등은 경찰청이나 각 학교의 재량과 협찬을 구했고, 인천경찰청의 학교폭력담당 경찰관과도 긴밀한 협조하에 함께 풍성한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상세한 일정을 소개하면 오전 7시 40분 각 학교 앞 집합해서 8시 30분까지 캠페인 활동을 하고, 8시30분 정도 종료 및 정리 후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각 학교별로 마련된 다과회 장소에서 정성스러운 다과를 나누며 교장선생님과 티타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등굣길 캠페인 활동을 하면서 좋았던 점이나 느낀 점을 우리 운영위원장들이 올려주신 생생한 댓글을 통해 전해 드리보자 합니다.

인천남고 장현미 위원장

나날이 발전하는 캠페인 활동 더 기대가 되고 좋기도 합니다. 고생들 많으셨고 맛있는 다과 대접도 감사했습니다. 이른 아침 등굣길에서 만나보는 우리 아이들의 맑고 밝은 눈망울이 좋았습니다.

예술고 김은숙 위원장

한 해 동안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처음 계획했을 때보다 하면 할수록 척척 잘 진행 되어져 가서 모두 수고 많으셨고, 보람 있었다는 말씀 전합니다~~~ 예술고 김은숙 위원장

동인천고 이경하 위원장

처음엔 일이 너무 큰 것 아닌가 했지만, 위원장님들의 열정과 관심 속에 잘 진행된 것 같아요. 끝나고 뒤통수에서 아쉬움도 남아요. 위원장님들 수고 많으셨어요.~~~ 동인천고 이경하 위원장

인천남고 장현미 위원장

올해 동부교육청 학교 운영위원회네트워크 14지구 위원님들과 의미 있는 캠페인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꽃의 향기는 십리를 가고 술의 향기는 백리를 가고 사람의 향기는 천리를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학 중점 학교와 유네스코학교로 지정되어 명문고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는 저희 인천남고에 함께 해주신 위원님들 모두의 진심 어린 관심과 노력이 천리를 넘어 우리 학생들의 기억 속에 오래 진하게 남길 바랍니다. 궂은 날씨에 이른 아침부터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천남고 장현미 위원장

송덕여고 소영 위원장

뜻 깊은 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넘 좋아요. 행사일엔 비도 안 오고 축복 받은 14지구. 하늘도 도와주는 우리 14지구~^^갈수록 내용이 알차고 단합이 잘되어 좋습니다. 먼 길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는 14지구 운영위원장님들 항상 파이팅입니다.~~~~ 송덕여고 소영 위원장

신명여고 정수미 위원장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점점 완성도가 높아가네요. 한 학교, 한 부모 같고 마치고 나서의 다과 나누며 학교장, 선생님들, 학부모님들과의 대화 시간도 즐겁고 특별한 이벤트였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네트워크 14지구의 케미는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보람있고 힐링되는 시간들였습니다. 신문 보도 자료도 엿졌습니다.

물품 지원이 가능했어서 좋은 활동인데 더 많이 많은 학교에서 하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 담당 주무관님

동부교육지원청 담당 주무관님과도 함께 활동해보고 싶었는데 일정이 맞지 않아 아쉬웠어요. 그래도 늘 열심히 지원해 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인천경찰청 학교폭력담당 경찰관

각 지구별 활동사진이나 영상 자료를 나누며 활동에 대한 의견 나눔과 피드백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은 것을 나누면 기쁨과 보람이 배가 되겠지요. 그럼에도 저희 학부모들에게 좋은 자리인장을 펼쳐주시고 기회를 주신 동부교육지원청과 담당 주무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훌륭한 네트워크였습니다.

북방 사막 딱새는 겨우 25그램, 설탕 두 숟갈의 가벼운 몸무게로 거센 바람과 맞서며 지구 한 바퀴를 날아간다고 합니다.

인천경찰청 학교폭력담당 경찰관

우리 학부모님들의 작은 목소리와 날갯짓이 우리 아이들과 학교와 우리 사회 전반에 안전과 행복과 존중을 위한 큰 울림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를 위해 이런 활동이 더욱 확대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있잖아, 너는 밤하늘에 빛나는 별 같아

산곡여중 교사 이안정



글자는 없지만 삶은 한 권의 책이 된다. 저마다의 이야기는 다르지만 그래서 더욱 '특별함'이 소중하다. 삶이 단조롭기만 하다면 금방 싫증이 나버릴 것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인생은 확실하지 않은 것, 그 하나만은 확실하다는 것이 우리가 아는 '불확실성'이다. 한 페이지를 넘겨야 다른 페이지가 나오듯 삶에서도 지금 겪는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면 더 나아지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청소년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 어른도 매일 정신적으로 성장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시가 곧 영화가 된 작품 중에서 1994년에 개봉한 '일 포스티노'가 있다. 영화는 대문호인 파블로 네루다와 그를 통해 시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마리오의 이야기다. 이 영화의 주인공 마리오는 '우편 배달부'로 글을 읽을 줄 알지만 시의 '은유'는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마리오는 기꺼이 그의 스승이 되어 준 네루다를 통해 시의 세계로 빠져 듈다. 시와 글을 쓰기 위해서는 '사색'이 필요하다. 극 중 마리오는 네루다의 이 말을 듣고 혼자 어두워진 해변을 걷는다. 그리고 첫눈에 반한 베아트리체를 향한 시의 은유를 분수처럼 쏟아내기 시작하다. 마리오가 베아트리체와 만난 후 네루다를 찾아가 "너무 아파요. 사랑에 빠졌어요"라고 말한다. 그러자 네루다는 "심각하지는 않아, 치료약이 있어"라고 답한다. 이에 마리오는 "싫어요. 낫고 싶지 않아요. 계속 아프고 싶어요"라며 시의 은유로 대답한다. 이 대사를 듣는 순간, 나는 가슴에서 무엇인가가 뚫려해졌다. 마리오의 대사에 무슨 해석이 필요하겠는가. "**시는 쓰는 사람의 것이 아닌, 그 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것이다**"라는 그의 대사처럼 마리오는 네루다를 통해 성장해 나간다.

어쩌면, "우리의 교육은 가르치는 사람의 것이 아닌 배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것은 아닐까?" 지금의 교육은 나와 너 사이의 건널 수 없는 강처럼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선 길기를 하고 있다. 그 선에서 누군가는 이기고, 또 누군가는 지고, 누군가는 상처받고 아파한다. 나는 가끔, 경쟁에 힘들어 하는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하곤한다. "**성적은 짧지만, 인생은 길다**"라고 성적은 학교 다니는 12년을 결정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남은 평생을 단정 짓지는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아이들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 1점에 울고 괴로워 한다. 마치 그 1점이 자신의 평생 성적표처럼 말이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을 때면 조용히 다가가 "괜찮다"라고 말해준다. 하지만 내가 하는 말은 메아리처럼 울고 있는 아이의 깊은 마음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떨어져 내린다.

충분히, 이해가 간다.

울고 있는 아이의 눈앞의 1점의 위력을.

성적 때문에 비관하는 학생들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요즘.

'행복'이라는 단어보다 '**성적**'이라는 단어가 더 아픈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처럼 아프다. 그러기

에 성적이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 짓는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성공하면 행복하다. 하지만 성공하지 않는다고 불행한 것은 아니다. 성공의 기준과 잣대는 그 무엇도 아닌 자신의 마음 안에 기둥이다.

그 기둥이 흔들리지 않고 잘 버텨가는 힘.

자존감은 실패 속에서 더 강해진다.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은 아이들에게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자존감**"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기 위해 아이들이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어쩌면, 시처럼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시는 설명하면 진부해져 버린다. 그러니, 시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정을 직접 경험해 보는 것이다. 인생도 시처럼 그런 것이 아닐까? 해석을 달면 평범해져 버리는 자신의 소신대로 직접 모든 것을 경험으로 배워나가는 것, 앞으로의 교육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나는 학교로 향한다.

오늘도, 우리 1학년 9반 아이들의 목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운다. 6시 30분 기상해서 출근준비를 하고 7시 10분에 집을 나서는 발걸음이 바쁜 기만 하다. 학교에서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1학년 9반 아이들의 이야기 담긴 교실의 불을 켜는 일이다.



밝은 전등이 햇살처럼 눈부시게
아름다운 보통의 어느 날,
2023 읽걸쓰 학생저자 출판 모
델학급으로 선정되어 우리 반 아
이들과 시집을 만들게 되었다. 학
생들의 글쓰기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한 학생 저자 등용 활성화를 목



표로 계획된 뜻깊은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국어 수업시간에 가르치는 시험을 위한 시로서가 아닌 삶 속에서 살아 숨 쉬는 소중한 일상을 담은 시집을 함께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시가 절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 아이들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 쓰기 강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강사님을 섭외하던 중, 서울의 양천고등학교에서 국어선생님으로 계시는 양 선생님께 부탁을 드리게 되었고 기쁘게도 강의를 수락해 주셨다.

강의 주제는 '챗GPT로 배우는 시 쓰기'!

시 쓰기를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하나로 선생님의 강의를 신청하며, 서울에서 인천까지 기꺼이 와주신 양 선생님이 너무 고마웠다.

적은 예산이라 멀리서 오신 선생님께 드릴 수 있는 강의료가 아주 작아 머뭇거리던 나에게 "강의료는 안 주셔도 됩니다. 아이들에게 시를 가르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쁩니다"라는 말을 해주신 선생님을 보며 "선생님의 선생님"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강의료보다 아이들의 눈빛과 마음이 담긴 시 한 편의 값을 더 값지게 여기시는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며 시를 어려워하던 우리 아이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선생님의 강의가 끝나자,

"선생님, 가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학생.

"선생님, 다음에 또 오시나요?"라고 묻는 학생.

우리 반 아이들의 표정은 시집을 만든다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렇게 우리는 시집을 만들기 위해 바쁜 하루를 보냈고, 마침내 시집

이 완성되어 갔다. 교실 속, 아이들은 얼굴은 점점 더 밝아져 갔다. 무엇인가를 해낸다는 "성취감"이 아이들을 성장시키고 있는 것 같았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우리는 마침내 시집을 출간했다. 시집의 제목은 "**있잖아, 너는 밤하늘에 빛나는 별 같아**"이다.

누군가가 보기에는 작은 성과일지도 모르지만, 한 아이의 인생에서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성과였다. 우리는 작게 출판기념회를 열었고, 소소하지만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2023년, 나의 삶의 별처럼 빛났던 1학년 9반 아이들이 시처럼 살아가기를 바란다.** 예산이 많지 않아 아이들에게 더 좋은 것을 많이 해주고 싶지만 해줄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힐 때면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교차한다. 도대체 그 많은 예산은 어디에 쓰이고 있는 것일까? 나에게는 달지 않을 만큼 너무 먼 거리에만 있는 것 같아서 가끔은 답답할 때가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인천에는 그 어떤 예산보다 가장 귀하고 값진 학생들의 꿈과 희망이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다.



부가 부를 탄생시키며 낳는 부조리들 속에서
교육이 지켜내야 할 것은 무엇일까?

그저 평범한 중학교 국어 교사인 내가
아이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어딘가에 파랑새는 있다"라는 희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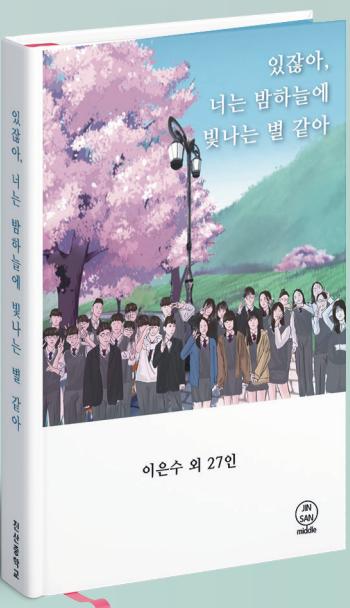
세상은 점점 메마른 사막처럼 삭막해져 가고,
한걸음을 내딛는 순간마다 파도처럼 밀려드는 두려움 앞에서
꿈을 포기하고 삶에 좌절한다.

14세의 내가 이제는 중년이 되어
14세의 아이들을 가르치며 여전히 성장해 나가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나에게, 그리고 인천교육에 있어서
밤하늘에 빛나는
별 같은 존재가 되어주리라
믿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수많은 별이 모여
새벽보다 빛나는 밤하늘이 되어 줄 것이라고.....

시인은 많지만, 우리는 시인을 알지 못한다.
시는 많지만, 우리는 시를 읽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 많이 알지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지도 모른다.



"인천금융고, 청소년 비즈쿨 활동으로 미래역량 기업가정신을 선도하다!"

인천금융고 교사 이윤숙

“

청소년 비즈쿨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총괄, 창업진흥원 운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대상 사업으로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확산을 통해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갖춘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비즈쿨(Bizcool)은 비즈니스(Business)와 스쿨(School)의 합성어로 본교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차 운영을 진행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성과 결과에서 탁월 평가를 3년 연속 이루기도 했습니다.

2023년에는 특히 인천교육청에서도 인천 청소년 비즈쿨 운영을 하며 13개 학교에 지원을 해줘 더 많고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

» 우리 학교 비즈쿨 동아리 활동 소개

우리 학교는 총 13개의 비즈쿨 동아리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창업 교육뿐만 아니라 기업가 정신인 창의혁신, 도전실천, 소통공감, 책 임나눔을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우리 학교 비즈쿨 동아리의 활동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2023년에는 인천지역 청소년 창업한마당에 2팀이 참가하여 대상 및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대상(인천광역시 교육감상) 수상팀은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도서비스 아이템으로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 활동은 성과를 떠나 학생들이 비즈니스 모델 사업계획서 작성, 모의투자 대회, 메이커스페이스 연계 체험 활동 등을 통해 창업가 정신을 함양하고 청소년 창업 생태계 저변 확대에 기여했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인천교육청 주관으로 글로벌취업박람회에 비즈쿨 동아리 부스를 운영하여 많은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청소년 비즈쿨 활동은 다양한 체험 활동과 나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개인의 역량을 발휘하면서 협력하여 행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이는 학교생활에 즐거움을 더해주며 도전 정신을 길러주고 자긍심을 고취시켜 미래 핵심 역량인 인성을 기반으로 진로를 개척하며 성장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학교 비즈쿨 동아리는 매년 5월이면 Happy Parents'Day를 운영하여 생태계 보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감사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비즈 마켓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창업 실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축제에서도 비즈쿨 마켓을 개최하

여 수익금을 6년째 100% 기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 1,572,900 원의 수익을 얻었으며, 이 수익금을 인천시 시각장애인 복지관에 기부하였습니다.



기업가정신 실천교육으로 인천교육청 환경교육 포스터 제작을 2년 동안 진행하였고, 인천환경공단 행사에 사용할 폐현수막을 활용한 현수막 제작과 커피박을 활용한 조형물을 제작하며 재능기부를 하였습니다.

다. 또한 인천시각장애인복지관에 선생님들의 사연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여(4건) 전달해드렸으며, 교육용 안구 모형을 3D 프린터로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학교돋보기

우리 학교 비즈쿨 동아리에서는 환경 보존과 생태교육을 위해 배추와 무우를 심어 김장 담그기 행사를 진행하고 수확한 농작물을 인천시 시각장애인 복지관에 기증하였으며, 야생화텃밭을 가꿔 생태교육을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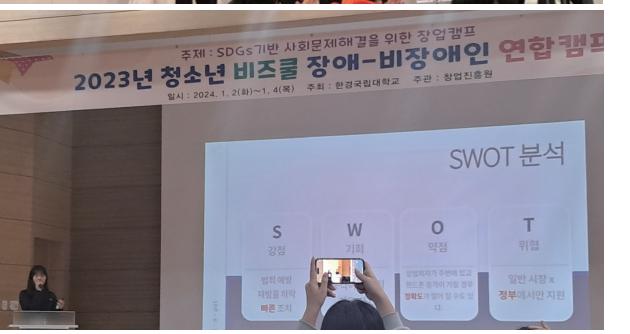
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지역 상가를 방문하여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작품들과 선물을 전달하며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외 미래인재양성을 위하여 기업가정신 교육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3학년도에는 인천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비즈쿨) 창업마인드 함양 연수, YEEP 스타트업 어드벤처, 청소년비즈쿨 장애-비장애 학생 통합캠프에 참가하였습니다.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에 인천금융고 청소년 비즈쿨은 2024학년도에도 더욱 열심히 매진할 것입니다!



아직 모르시나요?

한발 빠른 인천교육소식,
다양한 SNS 채널에서 만나보세요!

카카오톡



블로그



유튜브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모든 것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근본
근본을 지켜나갈 때 다양한 개성과 가능성의 피어나기에
인천교육은 올바로 · 결대로 · 세계로 교육으로
학생성공시대를 열어갑니다.

